

대통령기록관 방문

그동안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행자부(국가기록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이만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춰놓은 것을 직접 보니 무척 기쁩니다.

참여정부에서 기록관리 혁신은 '04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05년도 하반기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06년) 개정, 대통령기록관리법('07년) 제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부혁신위가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도서관) 제도도 깊이 연구해서, 지금처럼 전직 대통령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통령기록관 제도의 틀을 잡아주었는데, 아주 잘된 일 같습니다. 성심껏 애써준 정부혁신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공무원은 물론 연구자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행정자

치부 장관은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아낌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퇴임 후에 여건이 되는 대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기록문화를 만드는 데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 여러분은 국정의 핵심기록을 관리, 서비스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